



정교회주보

제2528호

2025년 6월 8일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

성 갈리오삐 순교자
조과복음 : 요한 20,19~23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 2 응송 265
- 오순절 찬양송 265
- " 입당송 265
- " 시기송 265
- 삼성송 대신 '그리스도 인하여' ... 85
- 사도경 : 사도행전 2,1~11 265
- 복음경 : 요한 7,37~52; 8,12 ... 106
- 오순절 영성체성혈송 266
- '우리가 참 빛' 대신 '오순절 찬양송'

* 성령 강림 의식

오순절 의식서 88

사진 설명

성상대의 성화들

성상대는 하느님과 인간, 영원한 세상과 유한한 세상의 경계를 상징하는 반면, 성화는 하느님과 인간의 화해가 이루어지고 두 세상의 통합을 의미한다.

아름다운 문 오른쪽에는 정면을 보며 축복하시는 그리스도와 그 옆에 세례 요한의 성화가 있다. 아름다운 문 왼쪽에는 성모님과 그 성당의 수호성인이 있다. 성상대의 크기에 따라 성화가 추가된다. 북문에는 미카엘 대천사가, 남문에는 가브리엘 대천사의 성화가 배치되어 있다. 모든 성화는 그리스도를 향해 두 손을 들고 간구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관심과 마음이 항상 그리스도를 향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준다.

성상대의 최상단에는 그리스도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열두 축일, 즉 성모 희보, 성탄, 입당, 신현, 변모, 라자로 부활, 성지, 최후의 만찬, 십자가형,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축일 성화가 위치한다.

니케아 제1차 세계 공의회 1700주년 기념 세계 총대주교와 총대주교청 공의회에서 보내는 서신

새 로마-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이며
세계 총대주교인 하느님의 종 바르톨로메오스는
하느님의 은총과 평화가 온 교회에 함께하길 빕니다.

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보시며 자비로우신 삼위 일체 하느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립니다. 하느님께서서는 당신 백성들이 니케아 제1차 세계 공의회 소집의 1700주년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이 공의회는 성령의 인도로, 태초부터 계시는 성부 하느님과 같은 본질을 가지시는 참 하느님 말씀(로고스)에 대한 진정한 신앙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시러 다시 오실 분”이십니다.

니케아 공의회는 교회의 공의회적 성격을 드러내는 사건이며, 교회 역사에서 초기 공의회의 모습이 절정에 이른 사건입니다. 이는 교회의 삶이 성찬 중심으로 실현된다는 점과,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함께 모여 ‘한마음으로’(사도행전 2:1) 결정을 내리는 실천과도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니케아 공의회는 또한 새로운 공의회 구조인 ‘세계 공의회(에큐메니컬 시노드)’의 등장을 의미하는데, 이는 그후의 교회적 사안의 전개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목할 점은, 세계 공의회는 교회의 삶에서 ‘상설적인 제도’가 아니라, 신앙을 위협하는 특정 상황에 대한 응답으로 소집되던 ‘비상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파괴된 일치와 성찬적 교제를 회복하는 데 있었습니다.

니케아 공의회가 황제에 의해 소집되었고, 콘스탄티노스 대제가 그 진행 과정을 지켜보았으며, 그 결정을 제국의 법으로 받아들였다고 해서, 이 공의회가 ‘황제의 공의회’가 된 것은 아닙니다(페르가몬의 대주교 요아니스 지지올라스, “Εργα Α’. Ἐκκλησιολογικά Μελετήματα, ἐκδ.

Δόμος, Ἀθήνα 2016, σ. 675-6). 이 공의회는 순수하게 ‘교회적인 사건’이었으며, 교회는 성령의 인도 아래 자율적으로 교회 내부의 사안에 대해 결정하였습니다. 황제는 그 과정에서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돌리고,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께 돌려라”(마태오 22:21)는 원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교회는 아리우스 이단에 맞서서,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살아온 신앙의 본질을 공의회를 통해 명확히 표현하였습니다. 태초부터 계시는 하느님의 아들이자 말씀은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참 하느님으로부터 나온 참 하느님”으로서, 성육화를 통해 인류를 원수의 속박에서 구원하시고, 은총을 통해 신화(神化)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가 하느님처럼 되기 위함이었습니다.”(성 대 아타나시오스, 말씀의 육화에 관해, PG 25, 192) 니케아 신경은 이와 같은 확고한 믿음을 힘 있게 선언하며, 당시 발생했던 이단적 왜곡이 인간 구원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이런 의미에서 니케아 신경은 단순한 이론적 선언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교리 문서들처럼, 신앙의 고백이며 교회 안에 살아있는 진리가 교회를 통해 진정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특별히 중요한 사실은, 니케아 신경의 기초가 어떤 지역교회에서 사용되던 세례 신조 또는 그러한 신조들의 모음이었다는 점입니다. 니케아 공의회는 교회의 변함없는 자기 인식을 진실하게 담아내는 주체로서, 각 지역교회들이 보존해 온 사도적 유산을 요약하고 재확인하였습니다. 성 대 아타나시오스는 이렇게 전합니다. “공의회 교부들은 신앙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결정하노라’라고 쓰지 않고, ‘이것이 보

편 교회가 믿는 것이다’라고 썼다. 그리고 곧바로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했으며, 자신들이 쓴 내용은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사도적인 것임을, 즉 사도들이 가르친 그대로임을 보여주었다.”(성 대 아타나시오스, 이탈리아의 아리미눔과 이사우리아의 셀레우케이아에서 열린 공의회들에 대한 서신, PG 26, 688) 공의회에 참석한 교부들은, 사도들이 믿던 바에 새롭게 더해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니케아 신경이 보편 교회의 공통된 신앙을 선포한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 전통의 수호자들’로 정교회가 마땅한 존경과 찬미를 드리는 공의회 교부들은, 말씀(로고스)의 신성을 표현하기 위해 철학적 용어인 ‘본질’(οὐσία)과 그 파생어인 ‘동일 본질’(ὁμοούσιον)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리우스는 이 용어들을 거부했고, 인류 전체의 구원을 위해 성육화하신 하느님의 신비 전체를 부정하였고, 결과적으로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을 버리고 ‘철학자들의 하느님’을 따르려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대한 과제로서 니케아 공의회가 교회적 일치를 강화하기 위해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는 바로 “부활 축일을 언제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였습니다. 오늘날 니케아 공의회 소집 1700주년을 맞이하여, 주님의 부활을 공동으로 기념하는 논의가 다시금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세계 총대주교청은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니케아 공의회의 결정에 따라, 한 날에 부활절을 함께 기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느님의 자비로, 올해 함께 기념한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신학적 대화와 ‘삶의 대화’를 통해 이뤄지는 ‘에큐메니컬 여정’에서 진정한 진보의 증거이자 상징이 될 것입니다. 나아가, 이는 분열 이전의 교회로부터 받은 유산을 우리가 실제로 존중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구체적 증언이 될 것입니다. 이 목표를 성취하는 것은 올해 1700주년 기념을 맞아, 故 프란치스코 로마 교황님과 제가 공동으로 삼았던 비전이기도 했습니다. 온 그리스도 세계가 부활절을 함께 기념한 직후에 교황님께서 선종하신 것은, 우리가 그 방향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할 책임이 있음을 더욱 깊이 일깨워 줍니다.

또 한 가지 니케아 공의회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던 것은 교회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

해 교회의 항구적인 법규 의식이 공의회적으로 명문화되고 확증되었습니다. 또 대교구 제도의 기초가 확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지역교회들의 권위와 두드러진 지위와 확대된 책임이 확립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다섯 대주교좌 체계(Pentarchy)’가 점차 형성되었습니다. 니케아 공의회의 교회법적 유산은 모든 그리스도교 세계의 공동 유산이기에, 올해의 기념은 우리를 그 원천으로, 분열 이전의 초기 교회가 세웠던 최초의 교회법 규범들로 돌아가도록 초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니케아 공의회의 결정을 시대를 초월하여 보증해 온 것은 콘스탄티노플 세계 총대주교청이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교회’의 정신은 니케아 공의회 1600주년을 기념하여 발표된 총대주교 및 총대주교청 공의회의 공동 회칙(K.Π.Α. κῶδιξ Α' 94, 10 Αὐγούστου 1925, σ. 102-3)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이 회칙은 니케아 공의회를 “교회의 첫 번째 세계 공의회이며 참으로 가장 위대한 공의회”라고 칭했습니다. 이 회칙에서는 “가능하다면, 모든 정교회 자치 교회들이 함께, 성대하게 이 기념일을 축하하자”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오늘날까지도 하느님의 은총으로 우리 거룩한 정교회가 공의회의 가르침과 정신에 신실하게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니케아 공의회는 성령 안에서 내린 결정으로 교회의 단일한 신앙을 확립하고 봉인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모인 대표자들의 참여를 통해 교회의 구조적 일치를 눈부시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계획은 당시의 긴급한 상황들과 세계 총대주교좌의 공식 상태로 인해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1925년 7월 19일, 바실리오스 3세 총대주교의 착좌 후 첫째 주일에 총대주교청 성당에서 거행된 ‘총대주교청 공의회 구성원들 참석 특별 성찬예배’를 통해 그 ‘지연된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회칙에서 교회론적으로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모든 그리스도교에 있어서 위대한” 기념일의 축하를 콘스탄티노플 교회가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점입니다. 이는 콘스탄티노플 교회가 “이 기념일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으며, 그 책임을 가장 직접적으로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보에서 계속)



바르톨로메오스 세계 총대주교님의 축일을 축하드립니다

오는 수요일(11일) 축일을 맞이하시는 바르톨로메오스 총대주교님께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주님 은총으로 항상 건강하셔서 오래도록 양 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기원합니다.

주간 예배 안내

- * 6월 9일(월)
성령 축일
 - * 6월 11일(수)
성 바르톨로메오스 사도
성 바르나바 사도
중국의 순교자들
-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

■ 오순절 주간 금식 해제

이번 주간은 오순절 축일 경축 기간으로 수, 금요일 금식이 해제됩니다.

■ 대교구청 주교홀

지봉 방수 공사

서울성당 장년회 회원들의 봉사로 5월 23일 금요일부터 시작한 대교구청 주교홀 지붕 방수공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힘든 작업에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알림

■ 故 소티리오스 대주교 안식 3주기 철야 예배 및 추도식

소티리오스 대주교님의 안식 3주기를 맞아 가평 수도원에서 6월 13일(금) 저녁 8시부터 철야예배(만과, 조과, 성찬예배) 및 추도식이 거행됩니다. 참례하실 분들은 오늘까지 각 지역 성당으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6월 15일(주일)에는 각 지역 성당에서 성찬예배에 이어 추도식이 거행됩니다.

■ 서울 성당 Vassilios Abrahtas 교수 방문

안양대 주최 국제학술대회에 참석차 호주에서 방한한 바실리오스 아브라타스 교수가 6월 1일 주일 서울 성당을 방문하여 성찬예배, 사랑의 오찬을 함께 하고 장년회와 청년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비잔틴 시대 성인들의 다양한 모습'이란 주제로 강연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 서울 성당 2025 아시아 주일(Asia Sunday) 예배

6월 1일 주일 저녁 6시 서울 성 니콜라스 대성당에서 NCCK(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주관으로 아시아 주일 예배가 있었습니다. <니케아 1700주년 : 영속적 신앙과 포용적 일치>라는 주제로 아시아 회원 교회들과 NCCK 임원단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회장이신 암브로시오스 대주교는 제1차 세계 공의회에 관한 강론을 하셨습니다.

영성의 샘터



오직 주님께 두는 희망

에프프레피오스 사부가 조언했다.

“만약 그대가 진정으로 하느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참된 분이시라고 믿는다면 오직 그분에게만 희망을 두시오. 그리고 그대가 그분의 선물을 상속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오.”